2035년 전남 상주인구 178만명

순천 최다 · 나주, 2015년 比 증가율 최고

구례 최저…22개 시군 2028년 초고령사회

오는 2035년 전남 상주인구는 178만5000여명으로 예측됐다.

순천이 상주인구가 가장 많고, 혁신도시가 있는 나주는 2015년보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도는 25일 2015년 대비 2035년까지의 '시군 장래인구 추계'를 공표했다.

장래인구추계란 최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 사회 현상을 반영해 향후 20년간 시군별 상주인구를 예측한 것이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5년 전남의 상주인구는 178만 5000여 명으로, 2015년 179만 7000여 명보다 0.7%인 1만 2000여 명이 줄어든다.

시군별로는 순천이 전남 전체 인구의 15.1%인 26만 8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구례군이 1.6%인 2만 7000여 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22개 시군 가운데 순천, 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흥,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신안, 11개 시군은 인구가 늘고, 특히 혁신도시 영향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된 나주의 인구증가율이 37.4%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 규모가 20년 동안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유소년인구(0~14세)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각각 2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인구는 2015년 24만 명보다 25.3%인 6만 1000 명이 줄어든 17만 9000 명으로, 생산가능인구는 118만 7000명보다 20.2%인 24만 명이 감소한 94만 7000명이다.

연령순별 정중앙 연령인 중위연령이 57.2세가 돼 2015년(45.4세)보다 무려 11.8세가 늘어나 고령화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흥은 65세 이상인 고령인구 비중이 53.8%로 고령화가 가장 심각하고, 인구 구성이 비교적 젊은 광양 역시 2028년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22개 모든 시군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시군 장래인구추계는 청년과 기혼여성 취업문제 해결, 신규 사업체 유치와 중소업체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맞춤식 보육정책 실현 등 인구고령화를 늦추고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전남도와 22개 전 시군은 이미 인구전담팀을 신설해 민·관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남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및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인구정책 지원조례 제정' 등을 추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최병만 전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시군 장래인구추계는 도에서 최초로 2035년까지의 미래인구 통계를 객관적으로 예측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와 시군의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갯벌도 얼려버린 '한파' 추운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경남 남해군 이동면 인근 바닷가 갯벌이 매서운 한파에 얼어 있다.

광주시교육청 정기인사

'브로커 연루' 직원 좌천

광주시교육청은 26일 2018년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승진, 전보 등 41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정원 금호평생교육관장 공로연수와 노영기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등 명예퇴직으로 지방서기관 승진 4명, 행정5급 승진 8명, 보건5급 승진 1명, 6급 승진 26명, 7급 승진 33명 등 총 81명이 승진했다.

부이사관급 금호평생교육관장에는 나종훈 총무과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했으며, 정연구 총무과 인사담당이 서기관으로 승진해 정책기획관 사학정책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노진성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선양과장과 강윤석 대광여고 행정실장, 장덕고 구권서 행정실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전보 인사는 홍양춘 정책기획관 사학정책담당이 공보담당관, 양주승 광주시교육정보원 총무부장이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정운용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이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에 임명됐다.

박치홍 공보담당관은 행정국 총무과장으로 발령하는 등 5급 이상 44명, 6급 이하 208명이 자리를 이동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최근 검찰수사로 밝혀진 관급 자재 납품비리 브로커와 같은 친목모임에 속했던 서기관과 사무관 등 9명이 좌천됐다.

조인호 기자

'옛 상무대 인근 광주천변' 오늘 5·18 암매장 발굴조사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를 찾기 위한 암매장 발굴 조사가 광주천변에서 진행된다.

2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오는 27일 오전 옛 상무대 인근 광주천변 자전거도로 부근에 대한 암매장 발굴 조사를 벌인다.

앞서 기념재단은 발굴 조사를 위해 광주시, 서구청과 실무 협의를 가졌다.

폭 3m, 길이 5~6m 정도를 굴삭기로 파내려가며 암매장 흔적을 찾는다. 이르면 오전 중으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곳은 전북에 살고 있는 한 제보자가 5·18 당시 경운기를 몰고 가던 중 암매장 모습을 봤다고 증언한 곳이다. 땅속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분석 결과 유의미한 신호가 감지되기도 했다.

기념재단은 광주천변 자전거 도로를 끝으로 올해 암매장 발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옛 광주교도소 발굴 조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테니스장 주차장에 매립돼 있는 흙을 들어내는 작업을 벌이는 등 발굴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또 1995년 5월29일 서울지검 조사에서 옛 광주교도소 암매장 사실을 털어놨던, 5·18 당시 3공수여단 본대대장 김모 소령 등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암매장 유해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당시 가해자였던 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돼 진실규명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기념재단이 맡아야 할 일"이라며 "한 달 평균 6000만~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재단이 사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규명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암매장 발굴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남규 기자

'제때 동작 스프링클러' 아파트 화재 막아

광주의 한 아파트 빈집에서 불이 났지만 자체소방시설이 제때 작동돼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25일 광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8분께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7층에서 연기가 새어 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량과 119 대원 등을 동원해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119가 도착했을 때 불길은 제때 작동한 스프링클러에 의해 진화된 상태였으며 연기만 가득했다. 소방당국은 환기조치 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화재로 인해 벽면 55㎡ 정도 그을음 피해를 입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길이 자체 진화됨에 따라 주민 대피 소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거실에 향초가 놓여 있었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폐차 58대 자기 밭에 보관한 60대 '덜미'

제주에서 차량 폐차 의뢰를 받은 업자가 실제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등록 말소차량 58대를 자신의 밭에 보관해 오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에서 폐차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차량 소유주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아 실제로는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제주시 소재 자신의 밭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2년에 걸쳐 총 58대의 차량들을 이 같은 수법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2월 폐차 의뢰를 받은 차량의 번호판 2개 중 1개는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 내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폐차되지 않은 차량들은 중고차로 둔갑 해외로 수출이 되거나 국내에서 대포 차량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행정기관이 폐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실제 폐차 여부를 증명할 방안을 마련토록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층간소음에 40대 윗층 집 문 둔기로 파손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윗층 집을 찾아가 욕설과 함께 둔기로 문을 파손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화성시 봉담면 한 아파트 6층에 살던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52분께 층간 소음문제로 윗층 집주인 A씨를 찾아가 항의하면서 둔기로 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과격한 행동이 계속되자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농가주택에 침입 귀금속 훔친 30대 구속

충남 서산경찰서는 26일 농가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상습 특수절도)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산과 당진 지역에서 한적한 낮시간대 농가주택에 침입해 20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였다.

같은 동포 2명 살해한 태국인 6명 붙잡혀

경북 경주에서 같은 동포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태국인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0·태국)씨 등 6명(태국인)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께 경주시 성건동 한 외국인 전용 술집 앞에서 B(34)씨와 C(25·여)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